

말씀 먼저 (열왕기상 18:30-40)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다. 갈멜산의 사건은 참 대단하고 놀라운 사건이다. 엘리야가 참 대단한 선지자이다. 나도 이런 종이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처음 읽을 때에는 몰랐는데, 다시 읽다 보니 우연히 들어온 것이 18장 1절에 보니 이미 하나님이 말씀을 해놓으셨다. 처음에는 엘리야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있었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이게 다르게 생각되었다. 이미 다 하나님이 해놓으셨으니까. 그 이후에 내가 신앙이 성장하고 나서 보니, 그렇지, 이렇게 되어야 하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것이 말씀대로 되어야 변함이 없는 것이다. 그래야 믿음만 하다. 따라갈만 하고. 안 그래도 내가 뭘 잘해야 된다고 해도 잘 되어지는가? 오늘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고, 이것 뿐 아니라 항상 꼭 이렇게 된다. 이미 우리에게 말씀이 와 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다. 저주에서 해방이다. 뱀의 머리 박살이다. 말씀은 이미 와 있다. 그리고 내게 부활 메세지 나와 있다. 뭐하며 살아가, 세상 끝날까지. 이미 다 나와 있다. 그대로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다 말씀 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 따라가면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도가 되어야 한다. 잘 안되는 경우 많다. 자꾸 내 기도를 말하고 싶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것이 내게 기도로 잘 안 들어온다. 오늘 이거 고쳐지는 축복이 있기 바란다. 하나님은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절대 바꾸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우리에게 가장 좋다. 세상은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는 길로 안 가면 다 죽는다. 그러면 당연히 나의 기도제목이 되어야 하고 진짜 하고 깊이 들어가고 24되어야 정상이다. 그런데 잘 안된다. 나도 많이 경험하고 하는 소리이다. 말씀이 기도가 되어야 한다. 내 기도가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뜻, 약속, 방향, 내용, 그것이 나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그 사람 산다. 마태복음 6:33절의 응답 받는다. 우리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해야겠지만, 근본 바탕 그림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당신의 백성을 원죄의 저주에서 건지기 위해서이다. 원죄가 없었으면 주님 안 오신다. 그리고 원죄를 인간이 해결할수 있다면 예수님 안 오신다. 원죄는 일어났고, 절대로 인간은 해결할수 없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건지고 싶으니까 오신 것이다. 원죄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인간이 깬 것이다. 이 언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하고 완전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다. 그리고 이미 있었던 사단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셨다. 그래서 이 언약만 깨지지 않았으면 사단이 무슨 짓을 해도 에덴동산은 지금까지 그대로 있다. 그런데 이 언약은 깨지고 인간은 근본문제 세가지에 걸려 들었다. 이제는 절대로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을 다시 못 만나게 되어진 것이다. 물 떠난 물고기가 물로만 되돌아 가면 모든 문제 해결인데, 무슨 짓을 해도 못 돌아가는 상황이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저주 가운데 살게 되어 있다. 예외가 하나도 없다. 무슨 짓을 해도 스스로는 절대 이 저주에서 못 나오고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안된다. 운명이 되고 말았다. 옆집 사람하고 비교할게 아니다. 에덴동산과 비교해야 한다. 흠리스와 비교해서 나 저주 아닌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스우실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지옥에 한번 가보면 그제서야 알게 될 것이다. 또 하나, 완전 사단의 종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인간은 예외없이 망하게 된다. 똑똑한 사람은 똑똑하게 망한다. 머리가 똑똑해서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된다. 바보는 바보같이 망해버린다. 꼼꼼하게 돌다리 두드리는 사람은 돌다리 두드리면서 망한다. 안된다. 죽어도 안된다.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다. 그래서 이 언약의 피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다. 저주를 받은 인간에게 좋은 소식은 하나 있다. 저주에서 나오는 답. 이 그림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담고 있어야 한다. 이 그림을 바탕으로 살아야 한다.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그림이 진짜 들어오면 그리스도를 정말로 잡게 된다. 그냥 생각하니까 그리스도가 오직이 안되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다. 완전하고 과학적이고 영적인 원리를 따라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언약되기 바란다.

1. 말씀 먼저

오늘 이 이야기는 북 이스라엘 아합왕 때 일이다. 이 왕이 너무 우상 숭배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3년간 비를 끊어버렸다. 여기도 3년 비 안오면 난리난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아합왕과 궁내대신 오바다, 2인자인데, 말과 노새를 먹일 풀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자고 각자 길을 떠났다. 이런 상황에 있는 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비를 내리시기로 결정하셨다. 그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1절이다. 18장 1절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에 여호와와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셨는데,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내리리라 하셨다. 이 말씀이 들어오고 나서 엘리야가 능력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 알고 싱거워졌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왕을 만나 이야기 했다. 그 당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남자, 여자 선지자가 400명 450명 포함 850명의 선지자가 있었다. 그래서 아합왕에게 엘리야가 말하기를 그 선지자를 전부 갈멜산에 모으라고 하였다. 아합왕이 이것을 이야기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문 듣고 많은 사람이 왔다. 그 당시에 3년간 비 안왔으니 먹을게 없는데, 그래도 걸어서 먹을거라도 있는 사람이 왔을 것이다. 그러면 그 지역의 유지였을 것이다.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엘리야가 말했다. 21절에, 너희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하나님과 바알중 무엇을 따를 것이냐? 그런데 백성이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헤깔렸다. 백성들이 이 질문에 대해 아무도 말을 못했다. 참 놀라운 일이다. 국가가 우상숭배를 너무나 강조하고 바알이 하나님이다 말하니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 버리니까 돌아버린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읽어보면 엘리야가 한가지 제안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송아지 두 마리를 가져오자. 850명 너희도 단을 쌓아라. 나도 단을 쌓겠다. 너희가 송아지 한 마리로 제물삼고, 나도 제물 삼아서 너는 너의 신을 불러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 부르겠다, 그래서 불로 답하는 자가 하나님이라고 말했다. 이 말을 하니 24절에 보니,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다 옳도다 하니라. 사람들이 이런 증거를 봐야 하나님이라고 믿겠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누가 태양을 관장하고 비를 관장하느냐 하는 의미가 들어 있다. 바알신은 태양신이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럴수 없는 것이다. 완전 뒤집어 저버린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영적 전쟁이 붙은 것이다. 너 먼저 해라. 바알, 아세라 선지자가 온 종일 돌면서 온갖 것을 다 해도 하루 종일 반응이 없었다. 안될 때에는 몸에 칼로 피도 내고 온갖것을 다 했다. 비가 안오니까 땅이 다 말라버렸다. 그러니 거기서 850명이 하루종일 도니 먼지가 얼마나 날겠는가? 그런데 아무 반응 없었다. 그래서 저녁 소제 드릴즈음에 엘리야가 백성을 모았다. 그리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언약의 백성의 상징인 돌을 가지고 와서 단을 쌓았다. 그리고 거기에 도랑을 냈었다. 도랑에 물이 찰만큼 물도 부었다. 송아지와 나무에. 이렇게 해서 기도하니, 38절에 결과가 나왔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도 다 없어졌다. 나무와 번제물은 말할 것도 없고 돌도 다 태웠다. 그렇다면 얼마나 뜨거운 불이었겠는가? 하나님이 아주 확실한 것을 보였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보고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였다. 우리도 우상숭배를 많이 하면 이렇게 될까? 참 우스개도 아니고 이제야 여호와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40절에 말했다.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기손 시내로 데려가서 다 죽였다. 850명 싹다 죽인 것이다. 850명 죽이려면 쉽지 않다. 한명에 두명은 붙어야 한다. 아마 백성이 한 2천명은 왔을 것이다. 이들을 죽이려면. 850명이면 2명이 붙어도 1700명이 필요하다. 전국에 있는 말 꽤나 하는 유지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은 확실한 것을 보여준 것이다. 놀라운 은혜이다. 벌을 내려서 돌아오게 할수도 있는데, 이렇게 돌아오게 하신 것

이다. 이 이후에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3년만에 비가 왔다.

먼저는 언약의 피제사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것이 근본이다. 그리고 그 언약의 피제사의 주인 하나님을 바로 고백하게 하는 것이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란 것을 보고 바른 고백했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다. 복음에는 항상 따라오는 것이 있다. 그 다음에 사단의 선지자 싹 다 죽여 버렸다. 엘리야를 보고 아무도 살인자라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난 후에, 가장 시대적으로 필요한 것,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지금 여기 일어난 것이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언약을 회복해야 하고,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아야 하고 사단의 선지자를 다 죽여야 한다. 시대적인 문제이다. 36절에 보면 엘리야의 기도가 나오는데,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먼저 부르고 그 시대 가장 시급한 것을 기도했다. 첫 번째는 주께서 이스라엘중에 하나님이란 것과. 왜냐하면 사람들이 헤갈리니까. 이걸 알게 해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주의 종인 것과, 850명이나 되는 거짓 선지자가 꼭 차 있으니, 세 번째는 이것을 내 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해달라는 것이다. 엘리야 자신의 노력이나 계획이 아니고 이미 말씀이 있었음을 백성들이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하고 계심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말씀이라고는 저 멀리 가버리고 말씀을 찾을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것을 앞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냐하면 세상을 시작시킨 것이 말씀이다. 말씀이 없으면 시작이 안된다. 말씀이 세상보다 먼저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1절에 먼저 하나님이 말씀을 먼저 주셨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하셨다. 항상 그렇다. 아브라함에게 말씀 주시고 그대로 하셨다. 노아에게 말씀 주시고 그대로 하셨다. 비온다. 배 만들어라. 요셉에게 말씀 주셨다. 7년 풍년, 7년 흉년, 그러니까 답이 있는 것이다. 전부다 그렇다. 지금은 어땠가? 말씀 와 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근본 말씀 다 와 있다. 그 다음에는 공이 우리에게 넘어온 것이다. 내가 그것을 잡아야 한다. 그리고 이 언약으로 세상 끝날까지 뭐할거다, 다 말해냈다. 237, 치유, 서밋, 말 해냈다. 여기에 들어가야 하고 이게 내 인생, 기도 되어야 한다. 그 사람 정복한다. 답은 이거 하나 뿐이다. 자꾸 다른 것을 가지고 하면 안된다. 속은 것이다. 될 듯 될 듯 안되고 세월만 간다. 절대 속지 말라. 말씀대로 하신다.

엘리야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 하는 중에 불과하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다 그렇다. 그것을 볼수 있는 것을 영안이 열렸다고 하는 것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방법이 말씀이다. 다시 한번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되기 바란다.

2. 기도

41절부터 보면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엎드려서 기도한다. 거기 보면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더니 비가 3년만에 왔다고 기록하였다. 하나님이 말씀 약속하신 대로 행하신 것이다. 그 과정 중에 엘리야의 기도가 있었다. 엘리야의 기도가 뭐를 만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중에 종으로 선택받은 것이다. 내가 뭐를 만들려고 하면 안된다. 이미 다 나와있다.

내가 옛날에,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텐데, 야고보서 5:17절 보면서 은혜 받은 분도 있을 것이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니가 3년 6개월간 비가 안왔고, 18절에,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다. 나도 은혜 받았던 말씀이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 때는 나는 엘리야는 아주 높은 사람으로 봤다. 그런데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기도했더니 이렇게 되었으니 기도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비가 안 온 것은 17장에 나와 있다. 그러시냇가에 물을 마셨더니 비가 안 왔다. 비가 온 것은 18장, 비가 안온것도 하나님이 말씀을 먼저 하셨다. 가서 그대로 했더니 일어난 것이다. 둘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을 야고보이 몰랐을 리가 없다. 그런데도 야고보고

이렇게 기록한 것은 우리도 기도하자는 의미로 가져왔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도 기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창세전의 결정으로 큰 은혜를 받았다. 당연히 말씀이 잘 안보이거나 모를때에도 우리는 기도할수 있다. 나도 이런 기간이 길었다. 그냥 기도했다. 말씀은 성경에 있고 기도는 기도였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살아온 과정을 보면 복음을 알게 된 그것을 기점으로 영적으로도 너무나 많이 바뀌었다. 그 전에는 신앙생활에 발전이 없었다. 그냥 나는 평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더 깊어진다는지 높아진다는 개념이 형성이 안되었다. 복음 알고 나서 이런것들이 눈이 열리는 것이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여하튼 그것을 기점으로 되어 졌다. 그래서 조금 성숙한 신앙인의 경우에는 조금 달라야지 막무가내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 딱 잡고 말씀이 기도가 되게 해야 한다. 말씀은 기도의 뿌리이다. 기도는 말씀에서 나왔다. 말씀 안에 있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말씀은 우리의 기도를 인도한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 안에 있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진다. 이것이 내게 보이면 자동적으로 그것이 내 기도가 된다. 기도하는 중에 받은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인도한다. 그리고 인도받은 기도를 통해 또 다시 말씀을 받는다. 기도와 말씀이 이제 왔다갔다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말씀이 성취되는 중대한 응답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 말씀,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인이 되는 것이다.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봤으니까. 엘리야의 기도제목은 전부 시대적인 문제였다. 사람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생각 안하고 난리가 났다. 미국도 마찬가지이다. 바알이 태양과 비를 지배한다는 생각이 아주 전국에 퍼져있는 것이다. 당연히 하나님의 종이 엘리야인지 850명 이상 선지자인지 분간이 안되는 것이다. 복음 모르면 분간 안된다.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정확하게 선이 그어진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도 지키지도 않았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을 알아야 한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기도제목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답 온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도 이 시대적인 기도제목을 가진 사람이 다 되어야 한다. 미국, 남미, 렘넌트, 다민족, 이 시대, 영적문제, 귀신 문화 같은 시대적 문제가 가득차 있다. 우리가 만일 이런 시대적인 기도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엘리야로 보일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셨다. 그 첫 번째 기도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였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기도제목을 주신 것이다. 그 나머지도 마찬가지지만 이 첫째, 둘째,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이 첫째와 둘째 기도제목과 얼마나 연관이 있나 생각해봐야 한다.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을 주셨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완전기도임을 알아야 한다. 엘리야를 통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언약이 회복되고 흑암세력이 무너졌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그 뜻은 뱀의 머리를 깨는 것이다. 백성들이 은혜를 받게 왜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으로 복을 받는게 하나님의 뜻이다. 사도행전 19장 잘 아는데, 8절에 보면 사도바울이 담대히 3달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했다고 적어놓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 내용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먼저 주신다. 그것 잡고 기도하라는 것이다. 성취될 때까지.

이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도 와 있다. 그리스도, 와 있다. 그 안에 있는 축복, 권세, 와 있다. 이것 가지고 이 땅 끝까지, 이 시대 끝까지 해야 할 것, 말해 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야 의미도 있고, 응답도 받는다. 우리는 시대적인 복음을 가졌기에 응답은 문제 해결경도가 아니라 정복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도 이런 인생이 되는 주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란다.